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2. 9.(월) 11:00,
(지면) 2024. 12. 10.(화) 조간

배포 2024. 12. 9.(월) 06:00

2024 북극협력주간, 아홉 번째 막을 올린다

- 12.10(화)~12.12(목),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2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3일간 부산 벅스코에서 「제9회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

비(非)북극권 국가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북극 관련 종합 행사인 '북극협력주간'은 매년 북극 관련 현안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올해 행사는 '북극과 사람 : 상호교감, 협업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극지의학회 등 국내 연구기관뿐 아니라 주한 북극권 국가 대사관*과 북극경제이사회, 북극프론티어 사무국 등 해외기관, 부산시, 인천대·영산대 등 지자체와 대학교에서도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주한 덴마크 대사관, 주한 캐나다 대사관 등

첫째 날은 '소통의 날'로 개회식을 비롯하여 북극 및 비북극권의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이 모여 북극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및 북극해 정책포럼을 통해 북극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학연구와 정책을 논의한다.

둘째 날은 '지식의 날'로 북극향로의 운항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동향을 공유하는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 또한, 북극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북극차세대 대화, 북극 예술과의 만남, 시민극지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극지 강좌에서는 유명 과학 유튜버인 궤도가 특별강연을 통해 북극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은 '지속가능성의 날'로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북극권 국가와의 청색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북극 관련 인문·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북극 정책과 원주민 협력 등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장도 마련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난제 앞에서 북극권과 비북극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책임자	과 장	강미숙 (044-200-5240)
		담당자	사무관	김근령 (044-200-6182)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녹색환경외교과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2-2100-8593)
		담당자	사무관	박민수 (02-2100-7831)

